

## 아버지의 담배

송 준 이 · 전북 전주시 서문초등학교 4-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록 쿵록, 쿵록.”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가침을 하신다. 담배를 피우시고  
나면 자주 하시는 모습이다. 이  
럴 때마다 나의 마음은 무척 아  
프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냐,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그렇게 대답하셨  
지만 우리 아버지 곁에는 늘 담  
배가 따라다닌다. 기분이 좋으실  
때는 웃으시면서, 기분이 안 좋  
으실 때도 화를 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담배를 찾으시는  
거다. 아버지가 이렇게 즐겨 찾  
으시는 것을 보면 담배 맛이 좋  
은가보다.

나도 한번 맛을 보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 몰래 담배 한 개를  
가지고 화장실로 갔다. 라이터를  
찾느라고 아주 힘들었지만 아무  
튼 담배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다. 담배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감히 입에 물 용기가 나지 않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연기와 함께  
담배 냄새가 화장실 안에 가득  
차고 있었다. 겁이 났다. 그때!

“똑똑, 안에 누구 있니?” 하  
시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창문을 ‘드  
르륵’ 밀며,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

정신이 없었다.

“급하다, 급해. 웬만하면 빨리  
나와라.”

나도 급했다. 그렇지만 생각대  
로 연기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았  
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드렸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  
며,

“뭐야, 너 무슨 장난쳤니?”

“이놈 봐라. 너 담배 피웠구  
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란 말  
예요.”

난 억울했다. 아버지는 내 말  
을 믿지 않으시고 화만 내셨다.  
그렇게 즐겨 찾으시는 담배도 찾  
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무서웠다.  
나는 내 손에 있는 담배를 아버  
지께 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화를 가리얏게 하느  
라 얼굴 표정이 아주 이상했다.  
나는 정말 죄송스러웠다.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아버지께  
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  
숨을 푹 쉬었다.

“그놈의 담배가… 미안하구  
나. 우리 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젠 담배를 끊어야겠구나.”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주시면  
서 어깨도 푹푹 해주시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담배를 끊  
으시기로 결심하셨나보다. 힘들  
어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께 해드릴 것이 무얼까 생  
각해 보았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제 준  
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  
력할게요.’

## 아빠와 담배

김 지 연 · 충남 청양군 장평초등학교 5-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우리 아빠는 담배를 너무도  
좋아하셨다.

“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담  
배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시며 항상 친  
구처럼 입에 물고 다니셨다.

난 그것이 항상 불만이였다.  
하찮은 담배 하나 가지고 소중한  
엄마와 비교하시니 말이다. 담배  
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아빠가  
담배를 피우실 때면 우리 가족은  
모두 옆에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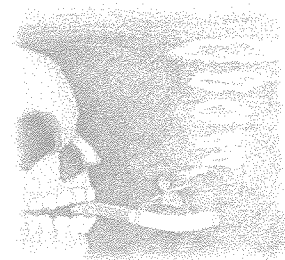
들처럼 콜록대고 찡그리고 심지  
어는 도망까지 다녔다.

그런 아빠께 담배를 끊게 만  
든 슬프고도 큰 사건이 하나 있  
었다.

갑자기 아빠께서는 연거푸 심  
한 기침을 하시며 가슴이 자주  
아파 온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줄로만 알았던 아  
빠께서는 마침내 병원 문을 두드  
리게 되셨다. 병원에서는 아빠의  
폐와 위장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  
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의 원인은 다른 것도 아닌  
담배였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하늘이 내  
려왔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 집  
의 농사일도 당장 아빠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  
기 때문에 더 막막했다. 난 그때  
엄마의 눈에서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수술을 해야 하는 아빠  
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원망스럽



기도 하였다. 평소에 담배를 조  
금씩만이라도 줄여갔으면 그런  
병변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텐  
데...

아빠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시는 동안은 우리 집에  
웃음이라고 찾아 볼 수가 없었  
다. 엄마께서도 아빠의 병간호를  
하시느라 집을 비우시자 집안은  
더더욱 엉망이 되어갔다. 다만  
할머니가 해 주시는 밥만 겨우  
얻어먹고 학교에 다닐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빠 엄  
마의 빈방을 청소하다 아빠의 옷  
주머니에서 피우다 남긴 담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난 너무도 화  
가 나서 그 담배 갑을 손으로 꾸  
기고 발로 밟아버렸다. 속이 시  
원해질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는  
아빠의 옷을 안고 영영 울었다.

마침내 아빠는 수술 경과가  
좋아 1주일만에 퇴원을 하시게  
되었다. 그 후로 아빠는 담배와  
영영 이별을 해야만 했다. 우리  
가족도 혹시나 아빠가 담배를 못  
잊어할까 두려워 아빠를 감시하  
기에 바빴다.

담배는 피우기는 쉽지만 끊기  
는 굉장히 어려운가보다. 아빠를  
보더라도 그렇다. 병원에서 수술  
까지 받는 고통을 겪으셨으면서  
도 담배에 대한 미련이 가끔씩  
생기는 걸 보면 말이다. 물론 다  
시 담배를 피우시면 우리에게 엄  
청한 벌금을 물으셔야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아빠는 무엇인  
가를 여전히 그리워하시는 눈치  
다. 그때마다 나의 마음은 왜 그  
렇게 불안해지는 걸까? 72

## 담배 연기

한 소 중 · 서울 잠전초등학교 6-4

**“후”** 소리와 함께 까만 도화  
지 같은 밤하늘로 희미  
한 담배 연기가 사라져 갔다. 그  
연기의 굴뚝은 가느다랗고 하얀  
담배.

아빠의 두터운 입술 사이에  
물려있는 ‘담배’. 그 담배가 아

빠의 건강을 조금씩, 아주 조금  
씩 해쳐가고 있다나...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  
시는 버릇을 지니고 계신 아버지  
만, 며칠 전부터 담배를 피우고  
오실 때면 ‘콜록, 콜록’ 기침이  
찾아지신다.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  
씩, 아빠께서 담배를 입에 물고  
계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아빠의 폐도 점점 담배연기에 조  
금씩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  
빠의 기침소리가 속삭이듯 내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아니 엄마도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가 담배이지만 혹시 그 중에 담배를 조금이라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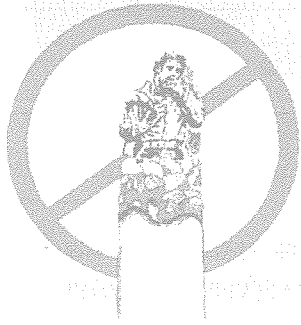
당신의 건강한 웃음을 입에 담으실 건가요? 아니면 담배를 입에 담으실 건가요? 그 마지막 판단에서도 건강을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나라에서도 담배를 하루에 다섯 갑씩, 여섯 갑씩 피우다가 그 담배연기에 물들어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목숨을 담배 연기처럼 흘러보낸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당혹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도 담배 한 개비를 입에서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폐암이라는 단어가 직접 자신의 현실로 온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담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빠도 담배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또, 폐암이라는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 하지만, 아빠도 아빠의 잦은 기침소리로 시작되는 '폐암'이라는 병에 조금씩 물들어 가는 것을 아신다면 하얏고 가느다란 그 담배를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으실까?

우리 아빠의 담배 구역역은 정해져 있다. 3층과 4층 사이의 창문터. 아빠는 담배가 그리우실 때면 굵고 두툼한 손에 라이터와 담배 한 개비를 꼭 쥐고 '아빠의 담배구역'으로 들어가신다. 그 때면 아빠의 담배 연기도 날아가고 아빠의 입김도 날아간다. 저 멀리 있는 하늘로.

출연. 당신 스스로를 때우고 있습니다.



동생과 나는 종종 아빠를 따라 '아빠의 담배구역'에 간다. 그곳에 가면 점점 타 들어가는 담배연기에 질식되듯이 코를 쥐어 막고 기침을 하지만 처음에는 길었던 담배가 짧게 타 들어가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구경을 한다. 동생과 함께 담배라는 존재는 그렇게 신기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만 했다.

그 담배가 짧게 점점 타들어갈수록 아빠의 폐도 담배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제는 아빠의 담배를 곳곳에 숨겨버리곤 한다. 그러면 아빠께서는 끝내 담배를 찾지 못하고, 두통하고 낡은 지갑 속에서 천 원 짜리 한 장을 꺼내 심부름을 시킨다.

"소중아, 슈퍼에 가서 담배 한 갑만 사오렴."

그러면 나는 심부름을 가는 척하다가 중간에서 되돌아와 어린이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핑계로 심부름을 끝마친다. 그러면 아빠께서는 아쉽다는 표정으로 천 원 짜리를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으신다.

언제인가 아빠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소중아, 아빠에게는 담배가 너희들의 과자처럼 달고 맛있는 거란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처럼, 아빠에게는 담배가 과자라니...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철었던 나는 '나도 과자 달라'며 울곤 했다고 아빠는 웃으며 말씀하시곤 한다.

아빠는 내가 글을 쓰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계실까? 과자 같은 달콤한 아빠의 담배를.

담배는 꼭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같다. 점점 담배 연기에 물들이고, 또 내뿜는 담배 연기가 그의 주변까지 질식시키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 말이다. 그 악마에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질식해 가고 있다.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언제나 아빠의 손에 꼭 쥐어있는 담배 갑에 있는 문장이다. 담배의 일부분에 그 문장이 누구나의 눈에 띄도록 쓰여 있지만 아빠도,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 문장을 마음 속 깊이 새겨본 적은 없을 것이다.

아빠의 말처럼 담배를 그냥 달콤한 과자로 피우는 것이 아닌, 혹시 아빠의 가슴 속 저 깊은 곳에 꼭꼭 숨겨져 있는 고민 때문이 아닐까?

이제 아빠의 가슴 속 저 깊은 곳에 있는 담배의 문을 열어드리고 싶다.

"아빠! 아빠의 건강한 밝은 웃음을 찾아드릴게요."라는 말과 함께. 72